

# 위원회

## 제1부

- Chapter. 01 KDA와 세계의 한마당을 준비하는 **학술위원회**
- Chapter. 02 세계 당뇨병 학계로 뻗어 나가는 **간행위원회**
- Chapter. 03 올바른 당뇨병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위원회**
- Chapter. 04 끝없는 배움을 준비하는 **수련위원회**
- Chapter. 05 당뇨병 정복을 꿈꾸는 **연구위원회**
- Chapter. 06 건강한 식단과 올바른 영양을 책임지는 **식품영양위원회**
- Chapter. 07 국민과 함께하는 **홍보위원회**
- Chapter. 08 당뇨병 관리 보장성 강화와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험법제위원회**
- Chapter. 09 세계와 호흡하는 **국제협력위원회**
- Chapter. 10 당뇨병 관리의 표준을 제시하는 **진료지침위원회**
- Chapter. 11 환자와 함께하는 **환자관리위원회**
- Chapter. 12 KDA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획위원회**
- Chapter. 13 당뇨병 관리의 시작 **일차진료위원회**
- Chapter. 14 50년의 감동과 기억을 만드는 **50주년기념사업단**
- Chapter. 15 소통과 나눔의 **정보위원회**
- Chapter. 16 신뢰와 존중 받는 학회의 초석 **윤리위원회**

# KDA와 세계의 한마당을 준비하는 학술위원회 (Committee of Scientific Affairs)

## 01. 설립에서 현재까지

1968년 학회 창립 당시에는 학술위원회라는 조직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학술부장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 제1차 학술대회는 학회 창립 후 2년이 지난 1970년 6월 13일 개최되어 국내에 당뇨병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 1981년에는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이 개최되어 국제 교류의 포문을 열게 된다. 또한 1987년과 1988년 서울과 프랑스에서 각각 한·불당뇨병심포지엄을 열어 국제적인 학술 교류 활동을 하였다.

매년 1회씩 거행하던 학술대회만으로는 그 왕성한 학문적 생산량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1985년부터는 학술대회를 춘계와 추계 2차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다.

1992년 드디어 학술위원회가 조직을 갖춰 대한당뇨병학회의 춘계학술대회 및 ICDM을 개최하고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02. 사업과 전망

1968년 10월 4일 학회 창립 후 1970년 6월 13일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1971년 제2차 및 1972년 제3차 학술대회까지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나, 이후 1978년 제6차 학술대회까지는 여러 가지의 제한된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2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다. 그러나 1979년 이후부터는 주위 여건의 향상과 참여 회원 수의 증가 및 연구 발표 논문수의 신장으로 다시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회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아울러 연구 발표 논문의 비약적인 질적·양적 향상으로 정기 학술대회를 매년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여 오고 있다. 제1차 학술대회의 참석자 수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1991년 6차 대회 201명에서 현재 1300~1700여 명 정도의 회원이 참가하는 큰 학술 모임으로 발전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와 짜임새 있는 학술대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5년 제9차 춘계학술대회부터는 춘계학술대회에

한하여 회원 수의 증가와 연구 발표 논문 편수의 증가로 학술대회 개최 시간을 종래의 하루에서 이틀로 연장하였다. 2003년 제16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참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2004년 사흘로 연장하였고, 2007년 제20차 춘계학술대회는 1634명이 등록하여 해마다 참여 인원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2007년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에게 트래블 그랜트(travel grant)를 공모하여 국제적 학회로 발돋움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어 2011년부터 학회의 국제적 기상을 높이기 위해 추계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abetes and Metabolism(ICDM)로 개최하고 있다. 2017년 '제30차 춘계학술대회 & 제3차 Korea-Japan Diabetes Forum'에는 총 등록인 수가 1173명이었고, 의사 555명, 간호사 249명, 영양사 141명, 약사 43명, 사회복지사 11명, 기타 174명이 참가했다. 의사들만의 발표에 국한되었던 내용들도 의사뿐 아니라 기초 의학자, 간호사, 영양사 등 당뇨병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참가해 발표하는 등으로 변화, 발전되었다. 또한 매년 국내 석학뿐 아니라 국외의 유명한 석학들이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200여 명의 해외 참가자를 포함해 국내외 1500여 명의 당뇨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ICDM 2017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ICDM 2017에는 해외 초록이 180여 편으로 전체 초록의 60% 이상이 접수돼 보다 폭 넓은 최신 학술 교류의 장이 되었다. 기초 강연과 더불어 당뇨병 관련 임상 의학과 행동의학, 교육, 합병증, 영양학, 유전학 등을 아우르는 6개 분야 15개 메인 심포지엄과 10개의 특별 세션, 위원회 세션, 연구회 세션이 함께 진행됐다. 아시아 당뇨병 교육자들을 위한 종합교육과정을

을 새롭게 개설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의료진들에게 교육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기획한 것이다.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은 2013년 한·일당뇨병포럼으로 발전하며 한국 및 일본 연구자 간 교류로 학문적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학술위원회는 사회적인 요구와 회원들의 관심을 아우르며 학술대회 주제를 선정하고 토의의 장을 만들어, 당뇨병이 완치가 가능한 그때가 올 때까지 국내 당뇨병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당뇨병 학계로 뻗어 나가는 간행위원회 (Committee of Publication)

### 01. 설립에서 현재까지

1982년 간행위원회가 설립되기 전 대한당뇨병학회는 이미 학회지 《당뇨병》을 발간하고 있었다. 학회지 창간호는 김응진 초대 회장을 발행인으로, 고광욱 학술부장을 편집인으로 하여 1972년 3월 1일 발행되었다. 이로부터 1983년까지는 2년에 1권씩 발간되었다.

간행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심사, 편집 및 발행을 위해 설치되었다. 학회지에 당뇨병의 역학, 병인, 합병증, 치료 및 대사에 관한 임상 또는 기초 연구를 다룬 논문을 게재하여 발간함으로써 회원 상호 간은 물론 국제 학계와의 최신 학술 정보 교류를 통해 당뇨병의 치료·교육 및 당뇨병학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1982년 간행위원회가 공식 설치되고 초대 김광원 위원장 이후 신순현, 김광원, 최동섭, 김영설, 김태화, 박성우, 이기업, 손현식, 백세현, 박경수, 원규장 회원이 간행위원장으로 임직하며 학술지의 수준과 위상을 높여 마침내 SCI(E) 등재를 이루어냈다.

2014년부터 DMJ-SCI 등재 준비팀, 전자 출간 및 게재 판정팀, 학술지팀, DMJ 인용 증진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02. 사업과 전망

주요사업은 학술지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당뇨병 전문 도서의 발간, 우수 논문 추천 등이다. 《당뇨병》학술지는 수많은 회원의 참여로 꾸준한 증편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공인을 획득하였고, 2004년 이후 논문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5~7개의 분야를 나누어 전문심사위원 중심의 논문 심사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 및 초록 투고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2005년 9월부터 온라인투고(online submission)를 시작하였다. 2008년부터 KoreaMed에서 《당뇨병》의 논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08년 32권 1호부터는 Medline 등재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당

노병》의 영문명을 기존의 ‘The Journal of the Korean Diabetes’에서 ‘Korean Diabetes Journal(약명 Korean Diabetes J)’로, ISSN 번호를 1976-9180으로 변경하고 첫 페이지의 개요(Aims and Scope)를 국·영문 두 가지로 게재했다. 2009년에는 일반회원도 온라인 논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논문 심사를 위해 매뉴스크립트 에디터(Manuscript Editor)를 고용하여 논문 형식 교정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9년도 국내 학술지 발행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었다. 2010년 대한당뇨병학회의 학회지 《KDJ》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논문 검색 프로그램인 Pubmed Central(PMC)에 등재되었음을 알리는 공고가 나왔다. 영문학술지 KOREAN DIABETES JOURNAL(KDJ)은 2011년부터 Diabetes & Metabolism Journal(DMJ)로 제호가 변경되었으며, 학술지 홈페이지도 e-kdj.org에서 e-dmj.org로 변경되었다.

한편, 간행위원회는 또 하나의 정기간행사업으로 2000년 국문학술지 《임상당뇨병》을 창간하였다. 《임상당뇨병》은 당뇨병 환자를 진료, 교육, 관리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임상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당뇨병 관리에 많은 도움을 얻고자 창간하였으며, 2001년부터 매년 3, 6, 9, 12월 4회를 발행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임상당뇨병》 8권 1호부터 4호까지에는 최신 지견과 당뇨병 STATEMENT, 특집, 당뇨병과 함께하는 웰빙 라이프, 원저 및 증례 등이 수록되었으며, 2011년에는 《임상당뇨병(Korean Clinical Diabetes)》도 《당뇨병(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으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간행위원회는 1992년 《당뇨병학》 교과서 제1판을 발행한 이후 1998년 제2판, 2005년 제3판을, 2011년 제

4판을, 그리고 2018년 제5판을 발행하였다.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지 및 전문 도서를 발간하는 간행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간행위원회는 향후 학술지 내용의 질적 및 양적 향상을 통해 당뇨병학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올바른 당뇨병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위원회 (Committee of Education)

### 01. 설립에서 현재까지

당뇨병 관리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실감한 학회는 1987년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전국 당뇨병 교육 현황 파악, 교육지침서 작성 등의 교육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1992년에는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 위원회의 명칭을 교육홍보위원회로 변경하고 당뇨병 주간을 창설하는 등의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에는 교육위원회와 홍보위원회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단계별 당뇨병 관리 교육, 2030 당뇨캠프 등의 사업을 맡고, 당뇨병 주간 행사, 학회 소식지 발간, 미디어 활동 등은 홍보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후 2008년 캠프소위원회가 구성되어 2030 당뇨캠프는 캠프소위원회 소관 사업이 되었다.

교육위원회는 당뇨병 교육에 관한 연구, 실행 및 평가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의사는 물론 간호사와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당뇨병 교육에 관여하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02. 사업과 전망

교육위원회는 △당뇨병 교육 현황 파악 △당뇨병 교육방법, 자료개발, 평가에 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당뇨병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조직 구성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교육자 세미나와 교육자 연수강좌, 단계별 당뇨병 관리(Staged Diabetes Management, SDM) 교육, 기타 교육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1990년 1차 당뇨병 교육 세미나를 시작한 이래 2000년 11차 세미나를 시행했고, 1999년 제1차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교육자 세미나와 교육자 연수강좌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을 취득하기 위한 인정시험의 필수 이수과목이기도 하다.

한편, 당뇨병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전국의 개원의에게도 당뇨병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커져갔다. 학회는 1992년 미국 International Diabetes Center(IDC)에 남홍우 회원을 파견하여 SDM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1999년에는 한국판 SDM 책자를 발간했다. 드디어 2000년 4월 제1회 SDM이 부천

시의사회 개원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에서도 ‘당뇨병 교육자를 위한 교육과정’ 등의 이름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1993년 이후 당뇨교실에 종사하는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간간이 진행되었다.

교육위원회는 《당뇨병을 올바르게 알자》(1, 2판), 《당뇨병 교육 지침서》(1, 2, 3판), 《단계별 당뇨병 관리》(1, 2, 3판), 《당뇨병 교육자를 위한 단계별 당뇨병 관리》, 《인슐린 요법》, 《당뇨병 교육의 치료적 시각》 등의 책자 발간, 《당뇨 상담가이드북》, 《건강을 지키는 칼로리 카드》, 《식품교환표》 등의 스티커·카드류 발간, 《알기쉬운 당뇨병 I, II》 비디오 발간, 등 왕성한 간행 사업도 벌였다.

또한 2011년에는 당뇨병 교육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교육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당뇨병 교육자를 위한 교육 모듈(DETM)’을 개발했다. 2014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만성질환 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인력을 지원했고, 이 사업은 2017년의 제1회 건보공단 집중교육 프로그램 지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2016년에는 학술위원회의 동의 아래 당뇨병 교육종류 포스터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비의사 회원의 학술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한국에서 당뇨병 교육을 실시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당뇨병에서 교육이 중요한 만큼 학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자 교육과 관리, 교육자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에 힘을 쏟을 것이다.

### 03. 당뇨병 교육자를 양성하는 교육자 관리위원회

당뇨병환자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 제도를 1999년에 만들었다.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은 교육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해당 임기의 이사장이 관리위원장이 되고, 교육이사가 관리위원회의 간사를 겸하여 교육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1999년, 2000년에는 각 지역 평의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서류전형으로만 교육자를 뽑았고, 3회인 2001년부터는 서류 심사 외에도 시험과 면접 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으로 교육자를 뽑는 데 주력하였다. 교육자 자격 인정증 제도로 당뇨병 교육자가 500명에 달하자 교육자 인정병원 제도를 2001년에 실시하였다. 이는 인정증을 취득한 교육자가 의사를 포함하여 3개 분야에 고루 있을 경우 그 병원을 당뇨병 전문병원으로 인정함으로써 학회의 제도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2008년 이후로는 기존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을 의료환경과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 및 운영하고 있다.

교육자 관리위원회는 이처럼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을 통한 교육자의 전문화, 당뇨병 인정병원의 지속적인 배출을 통한 교육기관의 확대 등의 사업을 꾸준히 펼침으로써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화를 이끌 수 있도록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며, 이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당뇨병 교육자 교육을 이끌어가는 학회로 손꼽히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 끝없는 배움을 준비하는 수련위원회 (Committee of Training)

### 01. 설립에서 현재까지

대한당뇨병학회는 급격한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당뇨병 관련 지식을 개원의와 전임의,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강좌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00년 수련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설립 이후 수련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당뇨병 연수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전공의, 전임의를 위한 연수강좌인 Postgraduate Course of Diabetes(PG Course)를 2002년부터 실시하였고, 2010년부터는 개원의 대상 당뇨병 교육프로그램인 Essential Guideline to Diabetes Management(EGDM)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일차 진료의사를 위한 출판 사업을 실시하는 등 학회에서 계획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2010년에는 젊은 당뇨병 연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The 1st Young Diabetologist Forum을 개최하였으며, Young Diabetologist Forum은 2015년까지 6차례 개최 되었다. 2011년에는 당뇨병환자 생활 습관 개선 체험 프로그램도 3회에 걸쳐 개최했다.

### 02. 사업과 전망

수련위원회의 주요 사업은 △개원의의 당뇨병 교육 현황 파악과 △개원의를 위한 당뇨병 연수강좌 및 EGDM 행사 개최 △전공의, 전임의를 위한 연수강좌 △1차 진료의를 위한 출판 사업 실시 △기타 학회에서 계획한 사업 등이다.

개원의 연수강좌는 1996년 시작되었으며 1999년까지는 학술위원회가 주관하였다. 2003년 제8회부터는 명칭을 ‘당뇨병 연수강좌’로 바꾸어 2018년 제23차 당뇨병 연수강좌에 이르렀다. 2010년부터 시작한 EGDM 행사는 1차 의료기관의 의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자 시작되었다. 주로 토요일 저녁시간에 시행되며, 인슐린 주사법과 자가 혈당 측정을 직접 실습하는 시간이 포함된다. 각 지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여러 번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의 의사들에게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당뇨병 심층 강좌로는 주로 전임의 및 고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심도 깊은 당뇨병 임상 및 기초영역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였다. 매년 다양한 주제로 젊은 내분비학 전공자들에게 도

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당뇨병 관련 분야의 지식은 임상 및 기초 분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속도의 발전을 하고 있다. 이에 폭넓은 관심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최신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당뇨병학의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련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수련위원회는 회원들의 요구에 잘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여 설립 취지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당뇨병 정복을 꿈꾸는 연구위원회 (Committee of Research)

### 01. 설립에서 현재까지

당뇨병 관련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뇨병 연구의 진흥을 돕고자 1992년 연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93년 당뇨병 관련 연구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당뇨병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워크숍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1995년부터는 ‘당뇨병 하계 워크숍’으로 일원화하여 많은 회원들의 관심 속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7년부터는 ‘당뇨병 연구를 위한 정례 집담회’를 년 4회 시행하여 관심 있는 회원들의 당뇨병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02년부터는 연구자들이 연구 방법을 몸으로 체험하고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데 실습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는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학회 연구비를 제정하여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당뇨병 관련 연구 기법을 망라한 《당뇨병 연구기법》 책자를 발간하였다. 2005년부터는 당뇨병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Young Investigator Award’를 제정하

여 수여하고 있다. 한편, 1986년 설원 김응진 명예회장의 회사금으로 제정된 설원 연구비도 연구위원회에서 담당, 연구비 수혜자를 선정해왔다.

1997년부터 여러 세부 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 회원들이 모여 연구회를 구성하여 현재 총 12개의 연구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02. 사업과 전망

당뇨병 연구의 진흥을 위해 설치된 연구위원회는 주요 사업으로 △워크숍을 포함한 당뇨병 연구 진흥을 위한 행사 △춘·추계 당뇨병 연구비 수여 대상의 심사 및 지급 △당뇨병 연구의 진흥을 위한 책자의 발간 △학회에 소속된 연구회의 현황 파악과 지원 △기타 이사회에서 의뢰하거나 당뇨병 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6년에는 임상시험 멘토링 프로젝트도 시작하였다.

### 03. 연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회

진단과 치료의 방편을 마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노력을 할 것이다.

#### 1) 혈관세포 연구회

**(Research group on diabetic vascular cell biology)**

혈관세포연구회는 실험에 대한 지식 및 기법의 상호 교류를 통한 연구 활동의 고양을 위해 혈관세포 배양을 하고 있던 당뇨병 연구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으며, 대한당뇨병학회 연구회들 중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1997년 유형준, 김두만, 김태화, 차봉연, 이인규, 김보완 회원 등이 혈관세포연구회를 설립하였다. 1999년 《당뇨병-혈관세포 배양 기술과 응용》을 발간, 2007년 개정하였다. 혈관세포연구회는 혈관세포를 이용한 실험실 연구를 도모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당뇨병성 혈관질환의 병인, 병태기전, 나아가서

#### 2) 노인 당뇨병 연구회

**(Research group on diabetes in old age)**

2002년 7월 16일 대한당뇨병학회 내에 노인 당뇨병 연구회가 결성되었다. 초대회장은 그간 노인 당뇨병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던 유형준 회원이 맡았고 이후 꾸준히 노인 당뇨병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집담회와 심포지엄을 개최, 공동연구 수행 및 2003년 《노인 당뇨병》을 출간하였다. 대한당뇨병학회 노인 당뇨병 연구회에서는 앞으로도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노인 당뇨병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노인 당뇨병의 예방과 올바른 관리를 위한 모든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연구회 현황(2018년 6월 기준)

연구회	발족연월	회장 및 총무
혈관세포 연구회	1997년 11월	박종열 / 이은정
노인 당뇨병연구회	2002년 7월	김정한 / 유성훈
운동 연구회	2002년 7월	민경완 / 손태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연구회	2003년 3월	박태선 / 김종화
대사증후군 연구회	2005년 12월	장학철 / 최성희
임산성당뇨병 연구회	2007년 6월	박석원 / 김경수
베타세포 웨도이식 연구회	2006년 1월	윤건호 / 이은영
당뇨병 유전학 연구회	2009년 8월	이인규 / 김성훈
당뇨병성 신증 연구회	2010년 1월	하현주 / 김남훈
자가관리 연구회	2007년 4월	유혜숙 / 구민정
지방간 연구회	2016년 2월	이대호 / 이병완
대사질환 신약 및 기술개발 연구회	2016년 12월	이인규 / 조은희

### 3) 운동 연구회

(Research group on exercise)

운동 연구회는 2002년 7월 16일 당뇨병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점차 감소하는 운동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관심 있는 인사들의 취지를 모아 발족하였다. 구성 목적은 당뇨병 운동요법의 적절한 지침을 설정하는 데 있었으며, 주요 사업은 △분기별 세미나 개최 △회원 간 공동 연구 장려 △당뇨병 운동 연구 관련 책자 발간 등이다.

운동 연구회는 당뇨병 운동요법에 관한 연구 및 상호 협조와 이에 바탕을 둔 실제적 운동요법 지침을 설정하는 데 앞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것이다.

### 4) 당뇨병성 신경병증 연구회

(Research group on diabetic neuropathy)

2003년 학회 연구위원회 산하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연구회를 발족하여 역학 조사와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연구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료 지침서》 발행 및 2006년 《당뇨병성 신경병증》 교과서의 발행과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역학 조사 및 추적 관찰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교과서, 진료 지침서 발행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최신 지견 습득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연구회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합병증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관리와 예방에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5) 에너지대사 연구회

(Research group on energy metabolism)

에너지대사 연구회는 기존의 ‘인슐린 당대사 연구회’와 ‘대사성 증후군 및 미토콘드리아 연구회’의 “미토콘드리아 연구” 부문이 합쳐져서 2005년 설립되었다. 초대 회장은 이홍규 회원이 맡았다. ‘인슐린 당대사 연구회’의 경우, 2000년 이기업 회원의 발의로, ‘대사성 증후군 및 미토콘드리아 연구회’는 2002년 이홍규 회원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에너지대사 연구회가 포도당 및 지질 대사 등 에너지 대사와 관련하여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및 대사증후군 등의 병인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분기별 세미나 개최와 △회원 간 공동 연구 장려 △에너지대사 연구 관련 책자 발간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대사 연구회는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및 대사증후군의 병태 생리적 기전에 관여하는 에너지대사 이상에 대한 회원들 간의 폭넓은 연구 및 협력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2018년 2월 13일부터 에너지대사연구회 활동을 종료하였다.

## 6) 대사증후군 연구회

### (Research group on metabolic syndrome)

2005년 대사증후군 연구회가 발족하였다. 고문으로 허갑범 회원, 초대 회장으로 이홍규 회원, 간사 장학철, 최성희 회원이 선임되었다.

대사증후군 연구회는 한국의 대사증후군 환자의 특성 연구와 대사증후군의 임상적인 결과를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정기 심포지엄과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최신 연구 동향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정기적인 심포지엄 등 활발한 학술 활동과 다기관 임상연구를 수행했다.

향후에도 대사증후군 연구회는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환자의 특성을 밝히고,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임상적인 결과를 추적하는 다방면의 최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심포지엄을 통하여 최신 연구 동향 및 지식을 습득하는 학구적인 연구회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7) 임신성당뇨병 연구회

### (Research group on gestational diabetes)

임신성당뇨병 연구회는 2007년 발족하였고 초대 회장으로 조남한 회원이 선임되었다.

임신성당뇨병 연구회는 임신성당뇨병의 역학, 치료, 관리 및 예후 등에 대한 연구를 도모하고 회원들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임신성당뇨병 치료와 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임신성당뇨병 환자와 그 자녀에 있어서 당뇨병을 포함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기여함을 목표로 했다. 임신

성당뇨병 연구회는 발족한지 11년이 되면서 임신성당뇨병이라는 특별한 상황의 당뇨병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임신성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8) 베타세포 췌도이식 연구회

### (Research group on beta cell biology and islet transplantation)

베타세포 췌도이식 연구회는 베타세포 연구회에서 비롯됐다. 베타세포 연구회는 2000년 최동섭 회원, 췌도이식 연구회는 2006년 김광원 회원을 회장으로 각각 발족했다가 2007년 통합했다. 이 모임의 목표는 췌장 베타세포를 중심으로 한 세포생리학적 연구자와 자가 면역기전을 중심으로 한 제1형 당뇨병 연구자들 간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고 학·연·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주요 과학기술 부문의 현안과제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과제 탐색과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 연구 및 임상실험 등을 시도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베타세포 췌도이식 연구회는 △췌도이식 심포지엄을 비롯해 △베타세포 생물학 세미나와 △베타세포 연구기법서 출간 △췌도이식 프로토콜 확립은 물론 △대한당뇨병학회와 이식학회와의 접촉 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당뇨병의 병태생리에서 인슐린 결핍의 중요성이 밝혀지고 있어, 베타세포 췌도이식 연구회의 역할은 점차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9) 당뇨병 유전학 연구회

### (Research group on genetics)

당뇨병 유전학 연구회는 2009년 승인됐으며, 박경수 회원을 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당뇨병 유전학 연구회는 당뇨병 유전학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 당뇨병의 원인 및 특성을 규명하고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세부 목표로 △당뇨병 유전학 연구 분야 최신 지견 공유 및 습득 △한국인 당뇨병의 유전적 원인을 조사 혹은 자료 수집 △당뇨병 유전학 연구 방법 습득 및 활용 등을 수립하고 있다.

당뇨병 유전학 연구회는 최근에도 세미나와 워크숍,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당뇨병 유전학의 최신 지견을 습득하며, 연구 결과를 국내외 연구진에게 전파하며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당뇨병에 있어서 유전학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10) 당뇨병성 신증 연구회

### (Research group on diabetic nephropathy)

당뇨병성 신증 연구회는 2010년 1월 최동섭 회원을 회장으로, 정춘희 회원을 총무로 하여 발족됐다. 발족 첫해부터 4월 6일 고대 안암병원 중회의실에서 춘계 세미나를 연 데 이어 7월 6일에는 이화여대 ECC에서 하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을 펼쳤다.

당뇨병성 신증 연구회는 다른 연구회에 비해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술활동으로 우리나라 당

뇨병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매년 수차례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학회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당뇨병 학술의 더욱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1) 자가관리 연구회

### (Research group on diabetes self management)

자가관리 연구회는 당뇨병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자의 역량 강화 및 학술, 연구 활동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교육 간호사회, 당뇨교육 사회복지사회, 당뇨교육 영양사회 등 세 분과의 교육자들이 모여 공동 연구회를 구성한 것이다. 자가관리 연구회는 2007년 유혜숙 회장, 심강희 간사를 중심으로 각 분과 9인의 위원들이 정기모임을 통해 공동 관심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연구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3분과는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

자가관리 연구회는 당뇨병환자들이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가관리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당뇨병 교육자의 역량 강화와 연구, 학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당뇨병 치료의 선진화에 앞장 설 것이다.

## 12) 지방간 연구회

### (Research group on fatty liver disease)

지방간 연구회는 지방간에 대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포함한 연구 활동을 위해 차봉수 회원을 회장으로 하여 발족됐다. 발족 승인은 2016년 이뤄졌으며, 이후 지방간 연구회 발족모임에서 지방간 연구회의 학술 활동 방향을 논의한 후 곧 이어 지방간 연구회의 첫 학술 집담회가 열렸다. 지방간 연구회도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많은 사업을 펼친 것도 아니고, 평가를 받을 만한 시점도 아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 학술집담회 등을 통해 학문적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가고 있어서 많은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회의 13개 연구회 가운데 가장 늦게 출발했다. 따라서 아직 특별한 성과나 활동을 기록하진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연구회와 마찬가지로 임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회의를 비롯해 학술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커다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촌의 당뇨병 퇴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13) 대사질환 신약 및 기술개발 연구회

### (Research group on development of new drug and technology on metabolic disease)

대사질환 신약 및 기술개발 연구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의 연구회 가운데 가장 최근인 2016년 12월 이인규 회원을 회장으로, 조은희 회원을 총무로 하여 발족됐다.

발족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던 대사질환 신약 및 기술개발 연구회는 2017년 7월 14일 가천대 이길여암당뇨연구원에서 대사성질환 T2B 기반구축센터(NECMD)와 대사성질환 혁신신약 및 뇌질환 진단 기술 개발사업단(GRCMB)의 후원으로 첫 워크숍을 열었다.

대사질환 신약 및 기술개발 연구회는 대한당뇨병학

# 건강한 식단과 올바른 영양을 책임지는 식품영양위원회 (Committee of Food and Nutrition)

## 01. 설립에서 현재까지

식품영양위원회는 당뇨병환자의 표준화된 식단 작성을 위해 1987년 1월 23일 제1차 평의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후 식품 및 영양에 대한 제반 연구와 교육 및 실천을 목표로 많은 영양학계, 영양사계 회원의 참여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입지를 단단히 가꾸어 왔다. 식품영양위원회는 진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 심포지엄을 개발하여 지식 정보를 나누고 새롭고 지식을 창출하며 한국 사회에 적합한 제도를 개발했다. 학회와 환자로부터 요구되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또한 다양한 회원의 융합, 친목을 도모하는 중요 위원회로 약진했다.

## 02. 사업과 전망

식품영양위원회는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 및 영양에 대한 제반 연구와 교육 및 실천을 위해 구성됐다. 식품영양위원회는 이에 따라 △한국인의 당뇨병 관리에 적당한 식사요법의 개발 및 표준화 사업을 비롯해 △식사요법의 연구와 교육의 지원 △식사요법 보급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도서 발간 △표준화된 식사요법의 보완 및 수정 △표준화된 식사요법에 따른 실행 △당뇨병 치료에 이용되는 각종 식품의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사업, 그리고 △기타 학회에서 의뢰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7년 위원회의 규정 제정과 식사요법의 원칙과 식품교환표의 작성, 우리나라 식사요법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외국 식사요법의 이론과 실제 고찰, 식품군의 내용 및 순서 결정 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그 결과 한국형 식품교환표가 설계되기에 이르렀다. 1988년 《당뇨병의 식품교환 지침》이 발간되어 제4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배포됐다. 이 책은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영양사회, 한국영양학회

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펴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었다. 1999년 당뇨병 환자와 일반인을 위한 외식지침서 《외식의 길잡이》를 발간했다. 각종 학술대회에서 식품영양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도 위원회의 중요한 일이다. 2009년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당뇨병교육영양사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영양학회가 공동으로 12명으로 구성된 식품교환표 개정 Task Force Team(TFT)을 구성하였다. 2010년 《당뇨병진료지침서》(4판) 발간에 따라 근거 중심의 임상영양요법 권고안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12년 ICDM에서 ‘당뇨병식단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을 교육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뇨병 식사요법 평가설문지를 개발하였다. 2015년에는 당뇨병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하였다. 2016년에는 한국당뇨병예방연구회가 출범하여 식품영양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생활 습관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17년 이후 ‘나의 식습관 점검하기’ 개발, 표준식사 부하 검사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식품영양위원회는 당뇨병의 식사요법 교육 내용의 표준화 작업, 식품교환표 개정 작업, 식사요법 선별검사 설문지 제작, ‘당밥(Dang Bab)’ 어플리케이션 개발,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중재 프로그램 개발 작업 등 시대의 요구에 꾸준히 발맞추고 있다. 앞으로도 당뇨병을 둘러싼 생활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다양해질 것이 명료한 바, 수준 높은 고급 지식을 끊임없이 갱신하는 전문가임에도 수많은 바램과 어려움을 두루 경청하고 환자의 눈높이에서 최선의 표준을 수립하는 수고로운 작업을 마다하지 않

는 화목하고 성실한 위원회로서 그 위상은 더욱 돋보일 것이다.

## 국민과 함께하는 홍보위원회 (Committee of Public Relations)

### 01. 설립에서 현재까지

당뇨병에 있어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학회 차원의 강력한 홍보 활동도 필요해졌다. 이에 당뇨병학회는 1992년 교육위원회의 명칭을 교육홍보위원회로 변경하고 당뇨병 주간을 창설하는 등의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대국민 당뇨병 홍보 활동을 더욱 확대 강화하자는 요구가 늘어나자 학회는 2002년 교육홍보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홍보위원회로 분리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분리된 홍보위원회는 당뇨병 주간 행사, 학회 소식지 발간, 미디어 활동 등의 업무를 시작했다. ‘당뇨병의 날’ 행사, 무료 혈당 측정, 당뇨병 걷기대회, 당뇨박람회, 대국민 강좌, 신문·방송매체 활용, 병원별 교육 및 당뇨관련 출판물 발간 등의 홍보 활동을 펼쳤다.

### 02. 사업과 전망

홍보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의 학술, 간행, 수련, 교육, 연구, 봉사활동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계획, 토의,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홍보위원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뇨병 소식지> 제작도 그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당뇨병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도 홍보위원회의 중요한 사업이다. 《당뇨병 무엇이 궁금하세요?》를 2007년 발간하였다.

홍보위원회는 또 당뇨병 관련 행사 홍보 및 지원도 맡고 있으며, 당뇨주간 행사, 대국민 공개강좌, 학회 홍보 사업, 기자간담회, 각종 학회 기념사업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행복가족 당뇨교실’, ‘파란양말캠페인’, ‘당뇨병 10번 타자 캠페인’, ‘그린스타 캠페인’,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 과제 ‘고혈압, 당뇨병환자 상담 및 표준 매뉴얼 개발’을 수행했다.

2014년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 홈페이지 개인정

보 보호 관련 수정, 네이버 당뇨병 건강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으며, 질병관리본부 심뇌혈관질환 홍보사업과 해피 클로버 캠페인을 통해 ‘당뇨병의 행복 시작! - 혈당, 혈압, 지질, 체중 4가지부터!’라는 4가지 중요 사항을 홍보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인슐린 치료 인식 개선 캠페인과 DPNP 소통 캠페인을 개최하고, 당뇨병 교육 애니메이션도 제작해 배포했다.

홍보위원회는 이밖에도 기획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심뇌혈관질환 공동 홍보대책회의 협조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뇨병 홍보 워크숍과 학회 부스 운영, 당뇨버스 운영, 당뇨박람회, 학회 기록·문서·동영상 자료정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대한당뇨병학회의 업무들에 비례하여 홍보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 또한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대국민 당뇨병 홍보 사업은 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해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홍보위원회는 당뇨병 없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홍보 업무에 아낌없이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당뇨병 관리 보장성 강화와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험법제위원회 (Committee of the Health Insurance and Legislation)

## 01. 설립에서 현재까지

1987년 ‘약제위원회(Council of Therapeutics)’ 설치가 의결되었다. 당시 주요 활동 내용은 ‘경구용 혈당강하제에 대한 인식도 조사사업’과 ‘경구용 혈당강하제 부작용에 대한 역학조사사업’ 등이었고, 1990년 ‘당뇨병 진료지침서’를 발간하여 지금의 진료지침위원회 역할까지 하였다. 1992년에는 ‘보험법제위원회’가 신설되어 초대 위원장에 김선우 회원, 간사에 김영설 회원이 선임되었다. 이후 2002년 3월 20일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Committee of Drug and Health Insurance)’로 통합 개편되었고, ‘당뇨병관리 필수소모품 보험급여화’와 ‘당뇨병 약물의 자유로운 병합 처방 인정’을 주요 활동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2009년 ‘보험법제위원회(Committee of the Health Insurance and Legislation)’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보험법제위원 선정은 학회 회원 전체의 뜻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 2, 3차 의료기관 소속 및 각 지회 소속이 두루 포함되도록 하

였으며, 간호와 영양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하는 위원분포 관례가 지켜지고 있다. 2014년 ‘제1형 당뇨병,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당뇨병학회와 소아과학회 회원 자격을 동시에 가진 소아내분비학 교수를 활동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2016년 이후 보험 법제위원회는 세부 담당 분야를 정하여 전문위원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 02. 사업과 전망

보험법제위원회의 일반 기본 업무는 △이사회, 평의원회에 위원회 활동을 정기 보고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보험과 법제, 정책 관련 업무 협의 △당뇨병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학회 회원 및 환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반영 활동 등이다.

이러한 기본 업무를 바탕으로 최근 중점 사업으로 △확대된 필수소모품 급여 정책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보

장성 강화에 힘쓰는 외에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의료 경제적 수준 향상 △당뇨병 관리를 위한 사회적, 법적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힘써왔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보험법제위원회가 추진한 당뇨병 관리 필수소모품 보험급여가 2010년 적용되어 2011년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혈당측정스트립 보험적용이 시행됐다. 2015년에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필수소모품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고시를 이끌어냈다.

2005년 미량알부민 정량검사, 2009년 인슐린과 일부 경구약 2제 병용이 허용되고, 2011년 부로 경구혈당강하제 3제 병합요법의 보험급여가 인정되게 되었다. 2015년 당화혈색소 검사가 당뇨병 진단용으로 인정되고 3개월 이상이던 추적검사 간격을 2개월 이상으로 단축시켰다

보험법제위원회에서는 장기적, 단기적인 사안들로 1) 제1형 당뇨병 지원 개선, 2) 첨단 기기 및 약제 급여, 3) 적정성평가, 4) 상대가치 개편, 5) 교육비 급여화, 6) 법제사안 및 법제 사안 사례 및 용어 정리, 7) 질병분류체계 (KDRG / KOPG / 통계청 상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6년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E. 119, 129, 139, 149)을 제외하고 모두 경증질환 분류에서 삭제되었다. 2016년 심평원 분류체계개발부에서 KDRG 4.0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기존의 K600 단일코드였던 당뇨병을 K601(급성합병증) / K603(제1형 당뇨병) / K604(합병증 동반) / K605(합병증 없는)으로 세분화 하도록 결정되었고, 2017년 KDRG 4.0 에서 네 등급으로 변경 확정되었다. 2018년부터 보험법제위원회 내에 법제팀을 구성하여 김수경 팀장을 중심으로 감정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부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험법제위원회는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보험재정의 한계로 근본적 문제 해결은 어렵겠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고 법리적인 해석을 반영하는 합리적 사회질서가 발달하는 한 보험법제위원회의 역할은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세계와 호흡하는 국제협력위원회 (Committee of International Liaison)

### 01. 설립에서 현재까지

국제협력위원회는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대한당뇨병학회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IDF, IDF-WPR, JDS 등 해외 당뇨병 관련 학회들과 해외 저명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한당뇨병학회가 세계적인 학회로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되었다.

국제협력위원회는 처음부터 대외적으로 활발한 사업을 벌이지는 못하였지만 그동안 대한당뇨병학회가 관계를 했던 해외 학회, 해외 저명인사들과의 교류를 시작하였고, 국제단체와의 접촉 창구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또한 IDF-WPR Congress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이 지역에서 당뇨병학회의 위상을 높였고 당뇨병 관련 사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올랐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2008년 뉴질랜드 웰링톤 IDF-WPR Congress에서 대한민국이 2010 IDF-WPR Congress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에는 IDF 2019 부산 유치를 확정했고, Keystone Symposia 2018의 서울 유치도 확정

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드높였다. 이처럼 대한당뇨병학회는 이제 한국 내의 당뇨병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학회가 아니라 서태평양지역의 당뇨병 관련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학회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02. 사업과 전망

2004년 신설된 국제협력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의 국제 접촉 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당뇨병 관련 해외 저명인사들과의 유대관계 유지 △해외 타 당뇨병학회와의 교류 증진 △기타 국제 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 등 4가지 정도의 주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해외협력 인사 관리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하여 해외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식적인 신년 인사 카드를 발송하는 것으로 첫 사업을 시작하였다.

첫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홍보위원회와 협력하여 대한당뇨병학회의 국제 접촉 창구로서 학회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했고 해외 홍보 사업을 시작하여 우리 학회의 일정이나 연간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 메일로 발송했으며, 각 나라들의 당뇨병 관련 프로그램과 국가 간의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면서 타 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로 IDF나 IDF-WPR에서 보내오는 최신 당뇨병 관련 논문이나 소식지도 한글로 번역하여 홍보하였고 2007년에는 IDF-WPR WPDD POA(Western Pacific Declaration on Diabetes Plan of Action)를 번역하여 책자로 발간하였다.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는 IDF-WPR General Council Meeting에 국제협력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우리나라 당뇨병의 실태를 알리고 국제적인 신경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대한당뇨병학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한·일당뇨병학회를 위한 조직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여 한·일당뇨병학회가 좀 더 큰 위상을 갖는 학술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동하였다.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으로 해외 연구자 및 단체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당뇨병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정보 교환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당뇨병학회 산하 국제협력위원회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0 IDF-WPR Congress의 개최 성공을 통하여 더 많은 국제규모의 학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

는 기반을 닦았으며, IDF Congress 2019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당뇨병 관련 최신 정보와 연구를 공유하고 대한당뇨병학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다.

## 당뇨병 관리의 표준을 제시하는 진료지침위원회 (Committee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 01. 설립에서 현재까지

대한당뇨병학회는 2010년 1월 진단과 역학, 치료 등 3개 소위원회를 합쳐 ‘진료가이드라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2월 이사회에서 ‘진료지침위원회 (Committee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이라는 정식 위원회로 승인했다.

#### 1) 진단소위원회

**(Committee on the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diabetes mellitus)**

당뇨병 관리에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진단기준의 확립이 중요함을 인식한 대한당뇨병학회는 1999년 ‘한국인 당뇨병 조사위원회’ 아래 진단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나라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진단기준에 대한 자료 분석 작업을 하였다. 2004년 대한당뇨병학회의 상설기구로 진단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진단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맞는 당뇨병, 공복

혈당장애, 임신성 당뇨병의 진단기준 확립과 당뇨병 선별검사의 기준 혹은 발병 위험도 알고리즘 개발사업을 하였다. 2007년 당뇨병의 진단 및 분류 권고안을 완성하여 문헌화하였다.

진단소위원회의 주요 사업은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임신성 당뇨병 등의 진단기준 확립 △당뇨병 선별검사의 기준 혹은 발병 위험도 알고리즘 개발 △한국인 실정에 맞는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확립 △우리나라 고유의 당뇨병 진단 지침서 마련 △당화혈색소 표준화 작업 등이었다.

#### 2) 역학소위원회

**(Committee on the epidemiology of diabetes mellitus)**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당뇨병에 대한 역학적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9년 신순현 회장 재임 시에 ‘한국인 당뇨병 조사위원회’ 산하 역학소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후 김광원 이사장 재임시절인 2002년부터 2003년 말까지는

학회에서 직접 경기도 지역 역학조사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역학조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어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역학소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당뇨병 역학과 관련된 자료 수집 △당뇨병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당뇨병 역학과 관련된 연구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유도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책자 및 홍보 자료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 3) 치료소위원회

#### (Committee on the treatment of diabetes mellitus)

치료소위원회는 당뇨병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치료에 도움이 주고자 ‘한국인 당뇨병 조사위원회’ 산하의 2년 기한 한시 위원회로 1999년에 만들어졌다. 1999년도 사업으로 11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별 100례 씩, 총 1196례를 연구 프로토콜에 맞춰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한국 당뇨병 환자의 치료 현황을 2000년에 발표하였다.

그 후 2004년 상시 기구로써 다시 구성된 치료소위원회는 2004년 8월 27일 제1차 워크숍을 개최하여, 당뇨병환자 치료에 대한 컨센서스 개발과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초치료 당뇨병환자의 치료 권고안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자료 부족이 심각함에 따라 치료현황에 대하여 이원영 회원이, 당뇨병환자의 고혈압 치료 현황에 대하여 이인규 회원이 조사 작업을 했고, 그 결과를 2004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여기서 이원영 회원이 최근 진단된 내당능 장애와 당뇨병환자에 대한 치료경향에 대해, 윤건

호 회원이 당뇨병환자에 대한 치료 권고안을 도출했으니, 이때가 우리나라 당뇨병환자의 치료 권고안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7년 여러 위원회들과 공동으로 제작한 대한당뇨병학회 치료 권고안에서 치료소위원회는 당뇨병 약물치료, 이상지혈증과 고혈압 치료에 관한 부분을 맡아서 작성하였다.

이처럼 치료소위원회는 당뇨병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인 당뇨병 표준 치료를 개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당뇨병 치료의 현실상을 조사하며 치료와 관련된 연구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한국인의 당뇨병 치료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

## 02. 사업과 전망

2010년 2월 이사회에서 상설위원회로 승인된 진료지침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당뇨병 치료 지침 개발과 △정기적 당뇨병 진료지침 개발의 인프라 구축 △진료지침의 활용, 보급 등이 있다.

앞서 소개한 진료지침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으로 한국의 당뇨병 진료지침은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과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지침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당뇨병 진료지침의 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들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여 근거 기반 지침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환자와 함께하는 환자관리위원회 (Committee for Patient Advocacy)

## 01. 설립에서 현재까지

환자관리위원회는 원래 캠프위원회가 하던 활동을 2018년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해 위원회 명칭을 환자관리위원회(Committee for Patient Advocacy)로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환자관리위원회는 △20~30대의 젊은 당뇨인을 위한 2030 당뇨캠프와 △당뇨병 캠프 워크숍을 개최하고 △캠프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당뇨병 환자 관련 정책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캠프위원회는 2008년 캠프소위원회로 분리되어 지회 및 소아 대상 당뇨캠프를 지원하면서 2009년 당뇨캠프 가이드북을 출판하고, 2013년에는 위원회 명칭이 캠프소위원회에서 캠프위원회로 승격됐다.

2013년 12월 《당뇨캠프 가이드북》 개정판을 출판한 캠프위원회는 2014년 당뇨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2015년에는 캠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료인의 올바른 교육 지원을 위한 캠프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2016년 5월에는 《당뇨병 이해와 관리》를 출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02. 사업과 전망

캠프소위원회의 주요 사업은 △하계 및 동계 2030 당뇨캠프 개최와 △당뇨캠프 워크숍 개최 △국내 타 당뇨캠프 현황파악 및 지원사업 등으로, 2004년 제1회 캠프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매년 여름 20~30대 당뇨인을 대상으로 하는 2030 캠프가 실시되고 있다. 2016년 《당뇨병 이해와 관리》를 출판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청년기 당뇨병환자 대상 당뇨병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게 올바른 당뇨병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당뇨병 극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20~30대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젊은 당뇨인을 위한 2030 당뇨캠프’를 개최해왔다. 환자관리위원회는 젊은 당뇨인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KDA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획위원회 (Committee of Planning)

대한당뇨병학회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신설된 기획위원회는 설립 첫 해에 대한당뇨병학회의 미션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선도한다(Lead the World free from Diabetes)’와 비전 ‘당뇨병의 연구와 치료에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세계의 리더(World Leader in Diabetes Research and Care with Global Standards)’를 제정했다. 기획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한당뇨병학회의 핵심가치로 ‘DIABETES’의 머리글자를 따서 Diabetes as a priority(환자, 회원 중심), Integration(조화로운 융합), Association for society(사회 공헌), Best practice(최상의 진료), Excellence in research(탁월한 연구), Team approach(활발한 협력), Education(환자와 전문가 교육), Support(지속 지원)를 추출하고, 모토로 ‘당뇨병을 넘어 희망으로(Happiness beyond Diabetes)’를 정했다.

기획위원회는 또 2017년 임원선출 규정을 만들었으며, 이 임원선출 규정은 2017년 7월 15일에 열린 임시 평의원회에서 의결됐다. 규정의 주요 내용에는 △이사장과 회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

여 평의원회 인준을 거치도록 하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016년에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한지 2년여에 불과한 기획위원회는 당뇨병학회의 근간이 되는 미션과 비전을 제정해 회원에게 홍보하고, 임원 선출규정도 새로 손을 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대한당뇨병학회의 더 큰 성장을 위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 당뇨병 관리의 시작 일차진료위원회 (Committee of Medical Practitioner)

### 01. 설립에서 현재까지

일차진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당뇨병 환자의 일차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개원가와 당뇨병학회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16년 기획위원회와 함께 새롭게 설립되었다. 개원가 네트워크 구성은 일차진료위원회 위원 26명과 각 지역의 관심 의사 416명이 참여하였으며, 일차진료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지역에서 당뇨병에 관심을 가진 개원 의사들을 선정했다. 학회는 이들에게 회원 가입 및 학회 행사에 적극 참여를 권하고 있으며, 일차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당뇨병에 관한 최신 의학 내용을 개원가에 신속히 전달하고, 개원가에서 당뇨병 진료에 대한 건의, 궁금증들을 수렴하여 학회에 전달하는 양방향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02. 사업과 전망

일차진료위원회의 주요 사업은 △개원가와 당뇨병학회 간의 중요 정책 의견 소통 △수련위원회와 연계한 개원의를 위한 당뇨병 연수강좌와 EGDM 행사 준비 △개원가에서 건의된 보험 문제점들을 보험법제위원회에 전달 △진료지침 개정 시 개원가 의견 수렴 △타 위원회와 협조를 통한 개원가 필요 내용 전달 등이다. 2016년 이후 춘계학술대회 말미에 개원의 대상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개원가에 좀 더 도움 되고 흥미로운 강의 전달을 위해 ‘증례로 알아보는 필수적이고 안전한 당뇨병 임상 진료’라는 주제로 개편하여, 참석한 개원가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앞으로도 일차진료위원회는 △‘당뇨병 치료 잘하는 의원’선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일차진료의사들이 당뇨병학회에 활발히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1, 2, 3차 의료기관 간 당뇨병진료의 의뢰-되의뢰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완성을 통하여 당뇨병 일차진료를 맡고 있는 개원가와 당뇨병학회 소통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50년의 감동과 기억을 만드는 50주년기념사업단 (Committee for KDA 50<sup>th</sup> Anniversary)

2018년 10월 4일의 대한당뇨병학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2017년 9월 29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년도 대한당뇨병학회 제2차 평의원회는 50주년기념사업단을 구성해 기념사업을 준비토록 했다.

이날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경수 회원, 간사에 원종철 회원, 당연직에 전성완 회원을 임직하고, 고승현, 권혁상, 김대중, 김수경, 서성환, 유형준, 이은정, 조영민, 차봉수, 최성희 회원을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기념사업단은 △50년사 제작과 △50주년 심포지엄 및 기념식 △50주년 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 △50주년 기념행사 기록 활동 등을 주관하였다. 평의원회가 이날 준비한 ‘50주년 기념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슬로건 선정은 학회의 미션과 비전이 결정되면 전 회원에게 공모기로 했으며 △엠블럼은 슬로건이 확정되면 디자인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대한당뇨병학회 50년사 발간하기로 하였으며, 발간에는 《대한당뇨병학회 40년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유형준 회원을 추대하였고, △기념품 제작과 함께 △2018년 가을학회에서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ICDM 2018 만찬시간을 활용해 50년사를 기념하고자 하였다. 학회의 50년사의 많은 발전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ICDM 2018 기간에 학회역사 및 회원의 증가추이나 연구현황 등을 Fact Sheets 형식으로 만드는 히스토리월(History wall)과 △학회장 내에 별도의 기념관을 설치하여 학회의 역사적인 전시물과 50년간의 학회 업적 중 회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 뉴스를 선정하여 전시하는 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사업단은 학회의 반세기를 회고하고, 당뇨병 미래 발전을 위한 회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한당뇨병학회의 회원과 함께한 역사적 발자취가 담긴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수집 대상 자료는 사진과 개인이 보관하는 각종 서류, 각종 회의자료, 교육자료, 책, 신문기사 스크랩, 상장 및 상패, 각종 행사자료, 서류양식 기념품 등이며 2018년 2월초부터 접수를 시작해 6월 말일까지 받았다. 이렇게 하여 수집된 자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ICDM 2018 학술대회 기간에 ‘KDA 50주년 기념관’을 준비하여 대한당뇨병학회의 50년 역사 자료를 전시 및 상영함으로써 기념사업의 의의를 더욱 크고 깊게 하였다. 2018년 5월 3~5

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1차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이사회에서 상정하였던 대한당뇨병학회 50년 10대 뉴스의 후보 업적 20개를 전시하였으며, 회원들의 참여로 상위 10개의 업적을 선정하였다. 또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본 사업단 50년사 편찬위원장인 유형준 회원이 2018년 5월 4일 저녁 6시 광주 홀리데이인광주 컨벤션홀에서 ‘Our 50-year challenge for the future(미래를 향한 우리의 도전 50년)’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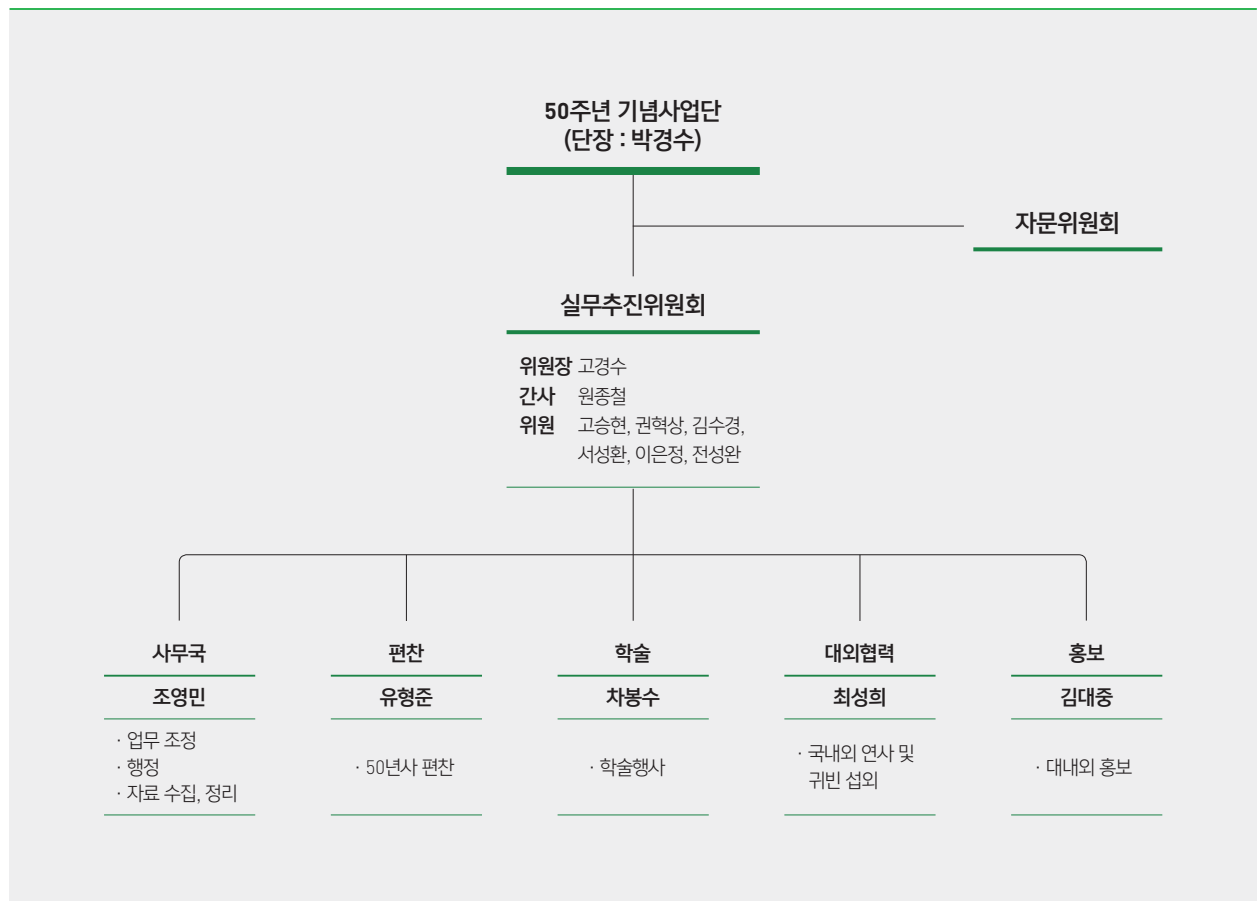
## 50주년 기념 엠블럼



50 Years of Challenge,  
Hope for Diabetes Cure  
KDA 50TH ANNIVERSARY

대한당뇨병학회 50년의 눈부신 성장은, 단일질환인 당뇨병을 중심으로(원형), 다학제-다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있었음을 상징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원동력을 통해 무한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즉, 의료진, 환자, 연구자, 산업체 및 정부 및 유관기관 등 크게 5개 분야의 참여와 협력을 상징코자하였다.

## 조직도



## 50주년 기념 슬로건

1. 선정 : 도전의 반세기, 당뇨병 치유의 희망(50 years of challenge, hope for diabetes cure)

2. 슬로건 후보(최상위 후보)

순위	한글	영문	의미
1	도전의 반세기, 치유의 희망으로	Challenge for 50 years, New hope for Diabetes Cure	지난 50년 간 대한민국의 당뇨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도전했던 대한 당뇨병학회의 위대한 여정을 기리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여 장차 당뇨병 정복에 앞장설 것이라는 바람과 의지를 표현함
2	“당뇨병을 넘어 희망으로” : 반세기 열정, 끝없는 도전	A half century of passion toward the endless challenge	지난 50년간 학회의 학술, 연구, 교육 및 사회 봉사 등 열정적인 활동이 ‘당뇨병을 넘어 희망으로’라는 대한당뇨병학회의 모토를 위해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을 간략히 표현하고자 함
3(공동)	당뇨병 연구 반세기에서, 건강 미래 21세기로	From half century’s research on diabetes, to the healthy 21st century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의 50년이, 건강한 21세기 미래를 만든다는 바람을 표현
	반백년 초석 위에 함께 여는 당뇨(병) 없는 세상	Let’s Open Diabetes-Free World Together On the Foundation of 50 Years’ Effort of the Korean Diabetes Association	대한당뇨병학회가 반백년 간 이어온 노력을 바탕으로 당뇨병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염원을 표현

## 최종 선정 10대 뉴스

구분	연도	10대 뉴스
1	1972	학회 공식 학술지 《당뇨병》 창간과 Diabetes & Metabolism Journal(DMJ) SCIE 등재(2017)
2	1990	당뇨병 진료지침 개발
3	1998	당뇨병환자에 가까이 다가가는 학회
4	2015	당뇨병환자 교육 자료 개발
5	2012	《Diabetes Facts Sheet》 발간
6	2011	국제학술대회 ICDM 시작
7	2019	IDF 2019 개최 예정 및 동양인 최초 IDF 회장 배출
8	2000	당뇨병 교육프로그램 SDM & EGDM 개발 및 확산
9	1999	당뇨병 교육자 인증체계 정립
10	2011	당뇨병관리 소모품 보험급여화



01

01. 2018년 제31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특별강연 중인 유형준 회원(50년사 편찬위원장)
02. 2018년 제31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한 10대 뉴스 선정 이벤트
03. 50주년 기념사업단 헌판식



02



03

## 소통과 나눔의 정보위원회 (Committee of Informatics)

정보소위원회는 과거의 인터넷관리소위원회(Committee for internet based management of diabetes)가 발전적으로 변환된 위원회로서 △홈페이지-회원 정보 관리 및 개선과 △디지털 강의 라이브러리 및 공유 시스템 구축 △디지털 컨퍼런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계 데이터 마련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홈페이지는 1998년에 처음 개설된 후 홍보위원회의 관할 아래에서 관리되어 오다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각 위원회의 인터넷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대한당뇨병학회 내에 인터넷관리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5년에는 인터넷 논문 투고 시스템이 신설되었으며, 2006년에는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을 재구성하여 학회회원과 일반회원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분리하였고, 자가진단 프로그램, 당뇨병교육 콘텐츠를 추가하고 상담코너를 일반 당뇨인이 이용하기 쉽게 개선하고 유익한 내용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회회원을 위하여 학술행사 안내와 학회지 검색 방법을 개선하고 각 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2008년에 새로이 홈페이지의 구성과 내용을 개선, 보

충하였고, 각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 지원하고 있다. 2011년 개편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당뇨병’ 웹사이트를 메인으로 하였으며, 학회회원은 ‘KDA 전문가’ 메뉴를 선택하면 학회 전문가 회원을 위한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디지털 강의 콘텐츠를 다양한 주제로 개발하고 이를 학회회원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강의 라이브러리 및 공유시스템의 구축을 시작하여 당뇨병에 대한 교육과 연구 자료가 회원들에게 좀더 효과적으로 제공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컴퓨터의 보급과 각종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 정보의 상업화 등에 힘입어 인터넷은 정보 공유·홍보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홈페이지 역시 회원들의 정보 공유와 홍보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관리소위원회는 회원들에게 당뇨병과 대한당뇨병학회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학회 활동 중 인터넷과 관련한 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

## 신뢰와 존중 받는 학회의 초석 윤리위원회 (Committee of Ethics)

현대 사회에서는 급격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여러 방면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들이 더욱 보강되고 새로운 기준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대한 의사협회는 2017년에 의사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환자와 생명에 대한 존경, 원만한 의사-환자 관계 구축, 상호 신뢰 관계 형성 등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을 새롭게 개정하고 소속 전문학회 등이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다.

윤리위원회는 주요 사업으로 △대한당뇨병학회 회원이 의료 발전과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진료, 간행, 연구, 수련, 홍보, 정보 처리 등 학회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관련 위원회와 함께 구체적 기준 및 지침 마련 △당뇨병 관리 및 교육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당뇨병 교육자에 대한 윤리규범 제정 △당뇨병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환자, 국민 및 사회 접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 찾기 등을 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아울러 출판·연구에 대한 윤리는 간행, 연구, 학술위원회와 함께, 그리고 진료에 대한 윤리는 진료지침, 수련, 보험법제, 일차진료, 환자관리, 식품영양위원회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윤리는 교육, 수련위원회와 함께, 홍보·운영에 대한 윤리는 홍보, 기획, 정보, 국제협력위원회와 서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2018년 신설된 윤리위원회는 △다른 각 위원회와 유기적인 활동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각 위원회의 향후 윤리적 부분 강화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유관위원회와 같이하는 회의 및 워크숍 등 개최 △이를 바탕으로, 대한당뇨병학회 윤리규정 및 지침 확립, 작성 및 공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의 모든 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회

## 제2부

- Chapter. 01 강원지회
- Chapter. 02 경인지회
- Chapter. 03 충청지회
- Chapter. 04 호남지회
- Chapter. 05 대구경북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 지회 현황

---

한국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당뇨병을 관리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어 지역적 특성을 가진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현재 대한당뇨병학회의 지회는 강원지회(회장 정춘희, 연세원주의대)와 경인지회(안유배,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충청지회(박근용, 건양대 건양대병원), 호남지회(정동진, 전남의대 전남대병원), 대구경북지회(김정국, 경북의대 경북대병원), 부산울산경남지회(최영식, 고신의대 고신대병원) 등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회의 2017년 주요 활동 내용을 일자별로 보면

- △3월 5일 제5회 부울경 내분비대사학회 학술대회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것을 비롯해
  - △3월 18일 충청지회 제17회 춘계 심포지엄(을지대병원 범석홀)
  - △3월 19일 대구경북지회 제19회 내분비 연수강좌(대구가톨릭병원 루가관 7층 대강당)
  - △3월 26일 호남지회 제21차 춘계 학술대회(전북의대 1호관 합동강의실)
  - △6월 17일 대구경북지회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경북의대 2층 세미나실)
  - △9월 2일 강원지회 제9회 연수강좌(강릉아산병원 별관동)
  - △9월 23일 제26회 호남지역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전남의대 덕재홀)
  - △9월 23일 대구경북지회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경북대병원 응급병동 10층 강당)
  - △10월 14일 부울경지회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및 세미나(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 △11월 18일 경인지회 학술세미나(차병원 판교종합연구원) 등
- 1년 내내 학술대회와 심포지엄, 연수교육, 세미나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강원지회

대한당뇨병학회 강원지회는 2011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제72차 이사회에서 설립이 승인됐다. 초대 임원으로 회장에 최문기(한림의대) 회원, 총무이사에 류옥현(한림의대) 회원이 임직하였으며, 2012년 3월 10일 강릉아산병원과 6월 16일 원주기독병원에서의 학술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강원지회는 △11월 17일 원주기독병원에서 EGDM을 개최한 것을 비롯해 △연수강좌(9월 15일, 춘천성심병원)와 △11월 11~17일 당뇨병 주간에 '당뇨병의 날 공개강좌'를 강원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원주기독

병원, 춘천성심병원에서 열어 지역민의 당뇨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도 했다.

강원지회는 이후 최근까지도 EGDM과 연수강좌, 당뇨병의 날 공개강좌 등을 계속 진행하면서 2015년부터는 1월에 임원 워크숍을 열어 새해 사업계획과 주요 추진업무를 결정하는 등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2015년 강원지회 당뇨아카데미



2018년 강원지회 당뇨병교육자세미나



## 경인지회

수도권인 경기인천지역에서도 당뇨병 교육을 위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001년 경기 인천 지역의 당뇨병 전문의가 모여 발기인 모임을 가진 후 수 차례의 추가 모임을 거쳐 경기인천지회(경인지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 모임에는 경인지역의 의사, 영양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참여하였다. 발기인 모임에서 명칭을 경인지회로 결정하고 3개의 분회로 나누기로 하였다. 3개의 분회는 경기북부(의정부, 동두천, 구리, 일산 지역), 경기남부(수원, 성남, 분당, 평촌, 안산 지역), 경기서부(인천, 부천 지

역)이다.

경인지회는 2002년 3월 30일 창립총회와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당뇨병 관리의 최신 지견'이라는 내용으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고, 창립총회에서 경인지회의 정관 발표와 회원들의 인준이 있었다. 회장은 가톨릭의대 부천성가병원의 강성구 회원이, 부회장으로는 한림의대 성심병원의 박성우 회원이 선임되었다. 초대 임원으로 손현식, 김현만, 강문호, 이석인, 정상수, 김용성, 김성래, 원영준, 송기호, 조용욱, 조남한, 유순집 회원이 임직하였다.

경인지회는 경기인천지역의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당뇨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당뇨병 관련 예방사업과 역학사업, 당뇨병 클리닉의 운영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 교환과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경인지회는 2002년 창립 심포지엄, SDM, 개원의 연수 강좌, 임원진 세미나 등을 개최한 이후 해마다 크고 작은 워크숍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2003년과 2004년에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전체 경인지역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

2015년 경인지회 추계학술세미나





2018년 경인지회 춘계집담회

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매년 춘계 워크숍과 추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이후 매년 SDM을 경인 각 지역을 순회하며 열고 있다. 2002년 5월 25일 경인지역 제1차 SDM이 개최되었고 이후 매년 3~4차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한편, 각 분회(경기북부, 경기남부, 경기서부)별로 1년에 4~5차례 모임을 개최, 소규모 학술 토론 및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분회별로 공동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경인지회는 경인지역에서의 역학 사업, 당뇨병 관련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회원 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충청지회

대한당뇨병학회 충청지회는 2001년 3월, 지역사회의 당뇨병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대한당뇨병학회 회원 중에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주축으로 설립하였다. 설립 이후 매년 당뇨병 심포지엄, 당뇨캠프, 당뇨인 걷기대회,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및 당뇨병 공개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2001년 창립 이래 매년 3월 춘계심포지움을 열어 당뇨병 교육자와 개원의를 대상으로 당뇨병과 관련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분야의 선생님을 모시고 토의를 하고 있다. 2018년 3월 10일에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충청지회 제18회 춘계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지역 내의 당뇨병 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뇨병의 진료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EGDM을 대한당뇨병학회와 협력하여 2004년부터 소도시 중심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당뇨인과 그 가족들이 직접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당뇨캠프를 2005년 8월 제1회를 시작하여 매년 8월 말에 2박 3일 일정으로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2015년 충청지회 제15회 춘계심포지움



2017년 충청지회 제12회 당뇨캠프



또한 2001년부터 매년 10월 당뇨인과 가족, 일반인이 참가하는 당뇨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환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운동 시 혈당관리법에 대해 체험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걷기대회에서는 운동 전후 혈당을 측정하고, 환자들은 진료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궁금증을 의료인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친목을 도모한다. 대전, 청주, 천안, 보령에서 분산해서 개최하며 해마다 6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뇨병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조기 진단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당뇨병 공개강좌를 매년 11월 당뇨병 주간에 대전, 청주, 천안에서 분산하여 개최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충청지회는 그간 지역사회의 당뇨병 연구와 교육에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져온 지회 회원들의 노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좀 더 활동적인 지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내의 당뇨병 연구 및 교육자 모임을 활성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행사를 대한당뇨병학회 본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당뇨인과 교육자들의 중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호남지회

호남지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의 교육자 세미나로부터 그 싹이 틔워졌다. 이 지역 봉직의와 개원의들을 위한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를 1992년부터 호남지역 4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마다 시행해오던 중 호남지역 지회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96년 대한당뇨병학회 호남지회 창립을 위한 발기가 이루어졌다.

1996년 9월 20일 대한당뇨병학회 호남지회 창립총회가 거행되었고 초대회장으로 이태희 회원이 선출되었다. 초대 평의원은 정민영, 백홍선, 배학연, 조정구,

박태선, 송형곤, 정동진 등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무, 교육, 연구, 재무, 학술 부문으로 나누어 부장 및 위원을 선임하였다.

호남지회의 구성 목적은 호남지역에서 당뇨병에 관한 학술연구와 지식보급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당뇨병에 대한 연구, 교육, 진료 등의 표준화 작업 및 발전이 필요한 가운데 구성된 호남지회는 이 지역에서의 당뇨병 관련 사업, 교육, 홍보, 연구 등에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호남지회는 1996년 9월 20일 전남

2017년 호남지회 춘계학술대회



2018년 호남지회 춘계학술대회



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한 제1회 호남지회 학술대회를 필두로 매년 춘계에 호남지회 학술대회를 열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22회의 당뇨병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도 1992년 9월 26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제1회 세미나를 연 뒤 매년 춘계에 개최하고 있고, 그 후로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를 좀더 세분화시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영양사의 참여를 독려하여 2017년 9월 23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제26회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를 여는 등 매년 끊임없이 개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의 당뇨병환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대한당뇨병학회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한 SDM 교육프로그램을 호남지역에서도 시행하였다. 이는 미국 International Diabetes Center(IDC)의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판 SDM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02년 4월 27일 호남지역 제1차 SDM이 개최되었고 이후 연 3~4차례 정기적으로 호남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었다. 2010년부터는 한국인 당뇨병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EGDM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호남지역에서도 시행하여 2018년 현재까지 호남 각 지역에서 매년 2회 정도 끊임없이 개최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호남지회는 호남지역에서의 당뇨병 관리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이 지역에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 추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당뇨병 인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리라는 것은 명확하며 이러한 수요는 호남지역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한당뇨병학회 호남지회의 역

할 및 규모는 더욱 늘어나리라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당뇨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

# 대구경북지회·부산울산경남지회

대구경북지회와 부산울산경남지회는 1985년 창립된 영남 당뇨병-내분비학회에서 비롯된 영남지회에서 각각 분리됐다. 영남지회는 2014년 6월 5일 열린 제 86차 이사회에서 경북지회와 경남지회로 분리해 줄 것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당시 경북지회 초대회장 손호상 회원(대구가톨릭대), 총무 김혜순 회원(계명대)이 임직했으며, 경남지회 초대회장 김인주 회원(부산대), 총무 강양호 회원(양산부산대)이 각각 임직했다.

이후 2016년 3월 9일 열린 제96차 이사회에 경북지회와 경남지회 명칭 변경 건이 상정되어 경북지회는 대구경북지회로, 경남지회는 부산울산경남지회로 명칭 변경이 승인되었다. 대구경북지회의 회장은 원규장 회원(영남대학교병원), 총무는 김혜순 회원(계명대 동산의료원)이, 부산울산경남지회의 회장은 박정현 회원(인제의대 부산백병원)이, 총무는 김미경 회원(인제의대 해운대백병원)이 임직했다.

2018년 현재 대구경북지회 회장은 김정국 회원(경북대), 총무는 조호찬 회원(계명대), 부산울산경남지회의 회장은 최영식 회원(고신의대), 총무는 권수경 회원(고신의대)이 임직하고 있다.

이 같은 과거사에 따라서 대구경북지회와 부산울산경남지회는 영남지회의 역사를 먼저 살핀 후 양 지회를 분리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 01. 영남지회

### 지역 학회에서 출발한 영남지회

1984년 11월 부산의대 김동수 교수, 김용기 교수, 인제의대 강창일 교수, 고신의대 박요한 교수, 대구 운영길내과 원장, 대구파티마병원 김원호 과장, 그리고 경북의대 김보완 교수가 협의하여, 영남지역에서 내분비대사학을 전공하는 회원들이 정기적인 학술 모임을 가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1985년 5월 영남 당뇨병-내분비학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부산의대 김동수 교수, 총무이사에 부산의대 김용기 교수를 선출하였다. 초창기에는 각 대학의 교수들이 장기간의 해외 연수 등으로 결원이 많아 1년에 두 차례 모임

조차 힘들었다.

부산 봉생병원 구대영 과장, 보훈병원 이상용 과장, 침례병원 손성표 과장, 메리놀병원 최신영 과장, 마산 삼성병원 권삼 교수, 포항 성모병원 이찬수 과장 등 소수였지만 열정을 가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참여 회원이 늘어났다. 각 대학별로 경상의대 정순일(1984), 계명의대 이인규(1986), 영남의대 이형우(1989), 동아의대 김덕규(1990), 부산의대 김인주(1992), 대구가톨릭의대 손호상(1993), 경북의대 하승우(1994), 고신의대 최영식(1996), 인제의대 박정현(1996), 경북의대 김정국(1997), 울산의대 김영일(1998), 동국의대 유석동(1999) 등 신입 교수들뿐만 아니라 각 병원의 전임의들이 신규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학회의 규모가 커져갔다. 영남 당뇨병-내분비학회는 1992년부터 매월 대구와 부산에서 번갈아 정례 집담회를 개최하며 내분비질환 증례토의 및 당뇨병 관련 최신 지견을 발표하는 한편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나중에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지역별 지회를 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남지회의 역할도 맡게 되었다. 1990년부터 매년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당뇨병과 내분비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요구하는 개원의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지견을 공유하고자 1998년부터 매년 3월초 대구와 부산에서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2002년 6월 호남지역의 당뇨병-내분비학회와 함께 제1회 영-호남 당뇨병대사회회를 개최한 이후 연간 2차례의 정기적인 심포지엄을 열면서 대구와 부산을 오가며 개최하던 영남당뇨병-내분비학회 정기 집담회는 중단하였다.

## 구성 목적과 주요 사업

영남지회는 당뇨병환자를 관리하는 교육자들에게 최신 정보와 올바른 치료방법을 교육하여, 습득한 지식을 당뇨인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게 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여러 활동을 진행할 때 긴밀한 협조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남지회는 춘계 연수강좌와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춘계 연수강좌는 1999년부터 매년 1회 당뇨병 교육자와 개원의를 대상으로 당뇨병의 치료법, 합병증 관리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대구와 부산에서 각각 연수강좌를 시행했다.

1990년 초부터 매년 1회 당뇨병 교육자에게 새로운 치료법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당뇨인의 교육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 교육은 대구 경북지회와 부산울산경남지회로 분리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당뇨병의 진료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단계별 당뇨병 관리(SDM)를 대한당뇨병학회와 협력하여 2000년부터 매년 소도시 중심으로 연 3~4회 실시했다.

영남지회의 주요 사업으로 당뇨캠프를 제외할 수 없다. 1991년 윤영길(윤영길내과 원장), 김보완(경북의대 내과), 김홍식(동산의료원 소아과), 고철우(경북의대 소아과), 이형우(영남의대 내과), 이인규(동산의료원 내과) 회원이 협의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제1형 당뇨병 어린이들을 위한 '하계 건강캠프'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992년 대구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교육원에서 시작한 캠프는 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영남대의료원 그리고 대구가톨릭병

원의 내과와 소아과에서 순환제로 주최하여 매년 4박 5일 동안 실시하였고, 2016년부터는 대구교육청과 협력하여 건강캠프를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1996년부터 10월 당뇨병 주간에 당뇨인과 가족, 일반인이 당뇨병 교육자와 함께하는 걷기대회 행사를 실시하였다. 걷기대회를 통해 당뇨인들은 평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고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자들도 서로 긴밀한 협조와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진단, 치료법, 합병증 관리 등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당뇨병 공개강좌를 대한당뇨병학회와 보조를 맞추어 매년 11월 당뇨병 주간에 시행하기도 했다.

당뇨병 역학조사 및 당뇨병 관리사업도 중요하다. 영남지회는 2003년 대구시 달성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차 역학조사는 2008년 8월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건 당국 및 개원가와 협력하여 당뇨병 관리사업을 계속해 나갔다. 이처럼 영남지회는 지역사회의 당뇨병 연구와 교육, 교육자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당뇨인과 가족들의 교육과 치료에도 힘

써 왔다. 지금은 대구경북지회와 부울경지회로 나뉘었으나 앞으로 교육자간의 정보 공유,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02. 대구경북지회

2016년 경북지회에서 대구경북지회로 새롭게 출발한 첫해부터 대구경북지회는 활발한 활동을 펼쳐갔다. 영남의대 원규장 교수가 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총무는 계명의대 김혜순 교수가 수고하였다. 학술 행사로 3월 6일 경북대병원 응급병동 10층 대강당에서 '제18회 대구경북지회 내분비 연수강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7월 9일, 경북의대 중앙강당)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10월 22일, 계명대 동산의료원 마펫홀) △제3회 학술대회(11월 19일, 대구 엑스코)를 개최하였으며, 연간 5차례의 집담회를 경북대/영남대/계명대/가톨릭대/동국대,과

2017년 대구경북 당뇨병내분비대사학회 학술대회



2018년x 대구경북 당뇨병내분비대사학회 개원의 연수강좌



티마병원 순으로 실시하였다.

2018년 1월 25일 총회에서 경북의대 김정국 교수가 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총무는 계명의대 조호찬 교수가 2017년에 이어 수고하기로 하였다. 3월22일 경북대병원에서 2018년 첫 집담회를 개최하였고 학술 행사로 2018년 4월 8일 대구가톨릭의대 강당에서 '제20회 내분비 개원의 연수강좌'를 실시하였다. 대한당뇨병학회와 협조하여 2018년 4월 28일 계명대 동산의료원 마펫홀에서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EGDM을 개최하였고, 5월 17일 동산병원에서 2차 집담회를 하였다.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6월 16일, 경북의대 중앙강당)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10월 22일, 계명대 동산의료원 마펫홀) △제4회 학술대회(11월 19일, 대구 엑스코) 등의 예정된 학술 활동이 쉼 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연간 5차례의 집담회를 경북대/영남대/계명대/가톨릭대/동국대/파티마병원 순으로 실시하고 있다.

### 03. 부산울산경남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는 1992년 부산지역에서 내분비분야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매주 목요일 저녁 부산대병원에서 소규모로 공부하던 내분비 집담회로부터 모임이 시작되었다. 2008년 부울경 내분비대사 연구회로 발전하면서 부울경 당뇨병지회로 공식화하여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부산대 김용기 교수가 초대 회장을 맡았고, 현재 고신대 최영식 교수가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초기에는 부산에서의 정기적인 집담회뿐 아니라, 대구지역 의사들과 2개월에 한 번 영남 내분비-당뇨병 연구회를 조직하여 학술 활동의 질적 향상과 상호교류를 도모하였다. 1999년 3월 14일에는 제1회 영남 연수 강좌를 개최하고, 이후 영남 및 영호남 학술대회와 연구 세미나를 지속하여 타 지역 의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회원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2013년 제1회 부울경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시작하였고,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는 2011년 처음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매년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약 250여 명의 회원 및 준회원이 학술대회와 연수강좌에 참석하여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지역에서의 학술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연구 환경이 열악한 지방의 의료 환경을 극복하고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여러 회원이 연합하여 공동 연구를 기획하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였고, 일부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013년 제1회 부울경 학술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3월 첫 주에 춘계학술대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4일 제6회 학술대회가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고, 2013년 제1회 부울경 연수강좌를 시작으로 매년 봄에 내분비 연수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당뇨병 진료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대한당뇨병학회와 협력하여 2000년 SDM(단계별 당뇨병 관리)부터 시작하여 매년 2~3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소도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부산과 진주에서 실시했고, 2018년에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시행했다  
성인 당뇨병 캠프로 1997년 당뇨병환자와 걷기대회



2015년 부산울산경남지회 활기찬 생활을 위한 당뇨캠프



2017년 부산울산경남지회 내분비-대사 연구 워크숍

를 시작하여 초기에는 1~2년 간격으로 시행하다가, 2004년 이후에는 매년 1박 2일의 성인 당뇨캠프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2018년 11월에는 제15회 부산 활기찬 생활을 위한 당뇨캠프를 앞두고 있다.

2011년부터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를 시작하여 매년 가을 시행되고 있다. 당뇨병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제1회 당뇨병 교육자 연수 강좌를 시작하여 매년 봄, 가을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춘계 교육자 연수강좌는 춘계 당뇨병 연수강좌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대구경북지회와 같이 2016년에 경남지회에서 부산울산경남지회로 이름을 바꾼 부울경지회는 2016년 9월 3일 부산 벅스코 제2전시장 3층 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지회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와 세미나를 함께 개최했다.

또한 부울경지회 6차 EGDM(Essential Guideline to Diabetes Management)을 2016년 6월 18일 부산대병원 E동 9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7차 EGDM을 2016년 7월 9일 김해문화원에서 개최하였으며, 8차 EGDM은 동년 11월 26일 인제의대 해운대 백병원 강

당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부울경지회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학술집담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매년 7월에 하계 연구워크숍, 2018년부터 매년 2월에 동계 워크숍을 진행한다. 당뇨병 연구회 활동도 활발하다. 2017년 부울경 내분비학회 산하 당뇨병 연구회가 발족되었고, 2018년 겨울 워크숍에서 연구회 운영방안이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4회 연구회 모임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1회 부울경 당뇨병연구회 모임은 2018년 4월 12일 부산대학교 T동 7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추후 분기별 연구회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